일제의 필지 분할에 의한 동래부 객사 공간의 해체 과정

The Process of Dissolution on the Lots-Subdivision
at *Gaeksa* of *Dongnae-bu* by Japanese Imperialism

송 혜 영*

Song, Hye-Young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서 치 상

Seo, Chi-Sang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lots-subdivision within the block of *Gaeksa* at *Dongnae-bu*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Gaeksa* of the old government office was the sanctuary that symbolized the sovereignty. Therefore it was naturally a main object of demolition and then the site was converted to other purpose. And *Gaeksa* was not only convert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and the public market but the historic site also processed to break down for opening the road through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The main reasons of lots-subdivision were the transfer from state property to private ownership and the urban development project. Needless to say, the particular major reason was derived from the intention of Japanese Imperialism to destroy the traditional urban. As a result, *Gaeksa* can not be recognized the traces of today and contributes to the demolition of the remaining ancient building. Finally the deformed urban structure was left over from destroyed building.

주제어 : 동래부, 객사, 동래읍성, 필지분할, 전용, 불하

Keywords: *Dongnae-bu*, *Gaeksa*, *Dongrae-eupseong*, Lots-Subdivision, Convert, Disposal

1. 서 론

1-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東萊府 客舍 일곽의 필지 분할 과정을 통해 부산지역 전통도시의 공간 해체 과정을 규명하여 그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동래부는 임란 이후 對日 국방상 전략요충지이자 외교 및 교류의 유일한 창구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거점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왜관을 중심으로 일본 전관거류지가 형성되면서 동래부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일본인들의 지역 상권 장악과 日帝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에서 비롯된 釜山府와 東萊郡의 분리는 전통적인 옛 읍치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켰다. 부산을 동래에서 분리시킨 일제는 지역에서 읍치가 지니는 영향력을 축소시키려 하였다. 따라서 읍치 내 聖域이었던 객사는 일제의 우선적인 철거 대상이 되었다.

읍치의 중심에 위치했던 객사는 국권을 상징했던 건축물이었던 탓에 韓末부터 일제에 의해 전용되었다. 객사 공간의 해체와 소멸 과정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동래부 객사 일곽도 그중의 하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남아 있으므로, 동래부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해체와 소멸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일제에 의한 시가지 조성과 특혜성 개인 拂下 그리고 부지가 학교 및 시장으로 轉用됨으로써 공간이 해체되는 과정을 밝힐 것이다.

* Corresponding Author : shy-772-@daum.net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01)

나아가서는 동래부 객사 일곽을 중심으로 오늘날 공간의 形骸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되어버린 부지 위에 기형적인 도시구조의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筆地는 地籍公簿에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이며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지번을 부여한 토지이다. 그 어원은 토지를 面帳의 一行마다 一筆 단위로 帳簿에 기재하는 것에서 유래했다.¹⁾ 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동래부 일대의 「地籍圖」와 「土地臺帳」이 작성되었고, 여기에 기재된 동래부 객사 일곽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조선후기 읍지 및 회화 이외에 참고할 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굴된 관련 자료들로서 공간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奏本』²⁾과 사진엽서 등을 통해서 韓末 객사의 공간 구조일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시가지 계획과 관련하여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³⁾는 동래읍성의 해체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의 신문기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객사 일곽을 중심으로 전통도시의 공간에 대한 해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동래부 객사의 공간 구조와 부지 전용

2-1. 읍지 및 회화에서 나타나는 공간 구조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東萊府誌(1740)』에는 동래부 객사의 위치와 규모 등이 간략하게나마 기재되어 있다. 즉 忠信堂(東軒) 북쪽에 객사가 위치하며 건물 39칸, 대문 3칸, 左·右挾門 각 1칸, 北公須 8칸이라는 내용이 그것이다.⁴⁾ 그러나 이후 작성된 『東萊府邑誌(1759)』, 『東萊府邑誌(1832)』, 『東萊府邑誌(1899)』 등의 읍지에는 별도로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1817년경 제작된 「東萊府使接倭使圖」와 1905년에 그려진 「東萊釜山圖屏」 등에는 당시 객사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비교를 통해 건물 외관 및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읍지 및 회화를 통해 동래부 객사의 공간을 유추해보

Fig.1 Dongnaebusa-Jeopwaesa-Do (left, 東萊府使接倭使圖, National Museum of Korea) & Dongnae-Busan-Dobyeong (right, 東萊釜山圖屏, Busan Museum)

면 동래읍성의 남문 및 서문에서 내부로 뻗은 도로가 접하는 점점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며, 동헌 북편으로 39칸 규모의 본 건물과 內·外三門 그리고 북쪽에 公須 8칸을 갖춘 하나의 일곽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통감부에 의한 부지 전용

객사는 국권을 상징하는 성역으로서 동래읍성의 중심부 高臺에 위치했다. <Fig.2>는 韓末에 동래부 객사의 正門이었던 息波樓를 촬영한 사진이다. 도로로부터 정문과 내·외삼문을 지나는 완만한 경사로가 객사의 正廳까지 연결되었다. 다수의 건물들로 둘러싸인 객사 일곽의 모습은 당시까지도 境內의 관리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태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Fig.2 Sikpa-ro(息波樓), Main Gate of Gaeksa (Source : Kim, Dong-Chul)

그러나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동래부 객사의 여건은 크게 달라졌다. 통감부의 주도로 정부 차원에서 객사 부지에 대한 광범위한 轉用이 추진되었고, 동래부 객사 일곽은 공립소학교의 신축부지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대표적 전용 사례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1907년 4월에 고종황제의 재가를 얻은 <奏本第二百十六號 前東萊郡內客舍東側空堡及別砲廳工房廳大同所收用新築公立小學校>⁵⁾는 옛 동래군의 객사 부지뿐만 아니라 인근 公廨까지 수용해서 학교로 전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單位の歴史辭典』(小泉製勝 編著, 柏書房, 1998)에서 필지의 어원인 '一筆'의 정의를 인용했다.

2) 『奏本』 奎 17703-V.1~165, 議政府 編

3)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 1927년경, 부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4) 官舍 蓬萊館 三十九間即客舍也 東曰賓賓軒西曰秩成軒 在忠信堂北 未知創於何年...肅宗癸未府使李璽在任時失火 乙酉府使黃一夏重創

5) 『奏本(奎 17703)』 114책 1907년 4월 27일,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과 度支部大臣 閔永綺 명의로 請議되었고 참석한 대신들(朴齊純, 內部大臣李址鎔, 閔永綺, 軍部大臣權重顯, 法部大臣李夏榮, 學部大臣李完用, 農商工部大臣成岐運)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재가를 받았다.

學部大臣李完用 照會第九號 接準 內槩에 前東萊郡邑內에 公立小學校設立次로 敝部視學官及事務官을 派送視察이온바 新建築基址 客舍東側空垞及別砲廳工房廳大同所 收用 意로 妥定이오니 該地與公廨는 貴部所管이옵기 茲以照會호오니 照亮認准호심을 爲要等因 이온바 該地及公廨 依照認許함이 恐合事宜이옵기 會議에 提呈事 光武十一年四月十日 度支部大臣閔永綺

즉 학부대신 이완용이 옛 동래군 읍내에 공립소학교를 설립하려고 관리를 파견해 물색한 바, 객사의 동측 공대 및 별포청·공방청·대동소가 있는 공간을 신축기지로 정하였다. 그런데 해당 대지 및 공해는 탁지부의 소관이므로 학부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안건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본 제216호>가 재가를 얻게 되자 동래부 객사는 종래의 성역 기반을 상실했다. 객사 부지의 전용이 이뤄지는 가운데, 1909년 11월에 객사 제도는 폐지되었고 건물들은 해당 지방관청에서 관리하게 되었다.⁶⁾ 이처럼 국권을 상징하였던 객사는 성역 말살이라는 일제의 의도에 따라 학교로 전용되면서 소멸되었다.

3. 필지의 생성과 변화 과정

3-1. 지적도와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객사 일곽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관계 확인에 의한 조세의 원천을 확보하였고 행정구역 명칭 및 경계를 정리하였으며 「地籍原圖」와 「土地臺帳」을 작성하였다. 일제강점기 토지 관련 정보는 이것들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동래읍성의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대장」은 1912년 5월 25일과 9월 25일에, 그리고

「지적원도」는 Fig.3 Gaeksa Block of Cadastral Map 1912년 9~10월에 (1912)

작성되었다.⁷⁾ 「토지대장」이 「지적원도」보다 먼저 작

6) 『동아일보』, 1929.11.27, 新聞의 新聞, 『대한매일신보』, 1909.11.26, 客舍廢止, ‘각고읍에 잇난객사난 자래로궐궐을 봉안하던 곳인데 이번에그궐궐을 일제히거두어올리고 그 집은디방에서 쓰기로결정되엿다더라’

7) 「지적원도」과 「토지대장」에 살펴보면, 지적 측량의 경우 북

Fig.4 A Cadaster(left) and a Cadastral Map(right), Area of 229 Bokcheon-dong

성된 것은 양안이나 가호안 등과 같은 기존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1912년 객사 일곽은 단일 필지⁸⁾의 ‘福泉洞 229垞(國)’⁹⁾로 등록되었으나, 1921년에 필지소유권의 경우 ‘國’에서 ‘東萊郡學校費’로 변경되었다. 이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學校組合令> 그리고 1920년 <學校費令>의 제정·시행에서 기인한 것이다. 법령들에 의해 학교운영권은 부지소유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고, 東萊公立普通學校¹⁰⁾의 경우 법인적인 東萊學校組合이 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지방관아가 소재했던 필지들의 「토지대장」에서는 소유권 誤謬訂正 표기가 간혹 발견된다. 「지적원도」에는 ‘國’으로 분류된 필지임에도 ‘○○○道地方費’로 정정된 경우로써, 복천동 229번지의 「토지대장」에도 이러한 오류정정 표기가 기재되어 있다.¹¹⁾ 이는 道 단위의 지방공공단체가 관할 내 국유지를 관리하게 되어 정정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 ‘國’으로 재정정한 이력이 남은 것이다. 어쩌든 이 오류정정 표기는 「토지대장」의 작성 초기에 조선의 지방관아 소재 필지들이 일관성 있게 관리되지 않았음을 알게 해 준다.

이처럼 복천동 229번지 주소가 부여된 객사 일곽이 동

천동은 1912년 9월 10일~10월 3일, 수안동은 1912년 9월 8일~10월 16일, 낙민동은 1912년 9월 10일~9월 27일, 칠산동은 9월 13일~10월 5일에 이루어졌고, 토지 사정은 1912년 5월 25일과 9월 25일자로 대부분의 公簿가 작성되었다.

8) 舊地籍法에서 筆地는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라 정의된다.

9) 「지적원도」에는 ‘福泉洞 229垞(國)’, 「토지대장」에는 地目이 垞, 地積은 2,947坪, 국가 소유(國)로 기재되어 있다. 福泉洞은 福祥里와 玉泉里에서 기인한 洞名으로 일본식 福町으로 변경되었다가 해방 후에 동명이 회복되었다.

10) 갑오개혁 당시 초등교육기관은 小學校(5~6년제)였으나 1906년 8월 日帝는 <보통학교령>을 발표해 명칭을 普通學校로 고쳤다.

11) 복천동 229번지의 「토지대장」 소유자 기재 란에는 1912년 사정 당시 소유자는 ‘國’이었으나 ‘慶尙南道地方費’로 정정되었다가 ‘誤謬ニ付發見訂定’이라 하여 ‘國’으로 재정정한 표기를 볼 수 있다. 이곳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관아 소재지 공부에서도 발견된다.

래군의 관리 하에 속하게 된 것은 1907년 학교 부지로의 전용과 1909년 객사 제도의 폐지로 건물의 관리권이 지방공공단체를 거쳐 학교로 이전되면서 비롯되었다. 또한 1914년 옛 동래부가 機張 지역을 편입한 東萊郡¹²⁾과 釜山府로 분리·재편 되면서 객사를 비롯한 동헌 및 관아가 집중된 옛 읍치는 동래군 東萊面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옛 동래부 東軒은 東萊郡廳으로, 옛 동래부 객사는 동래군의 공립보통학교로 전용되었다. 이렇듯 북천동 229번지의 필지 변화에는 당시 지역의 여건, 동래군의 행정구역 변화도 반영되었던 것이다.

3-2. 공립보통학교 부지로 전용

1907년 <주본 제216호>에 따라 객사 일곽이 학교 부지로 전용되면서, 정청 건물 이외의 부속 건물은 훼손되었고 그 자리에 신축 건물이 건립되었다. 또한 1909년 객사 제도의 폐지와 함께 정청도 학교로 이관되어 校舍로 활용되었다. <Fig.5>는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 해주는 사진자료로서, 옛 객사의 정청 건물에 유리창 설치에 의한 외벽 變容과 그 좌측으로 신축한 2층의 교사 건물도 확인된다.

Fig.5 Dongnae Elementary School (Dongnae-gu Office)

Fig.6 Change of Aspect in Gaksae Block (Kim, Dong-Chul [up], Dongnae-gu Office [down])

그리고 <Fig.6>은 전용 전후의 경관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1920년대의 동래공립보통학교를 촬영했던 사진들을 비교한 것으로, 두 경관의 차이가 확연하다. 위의 사진에서는 부지가 주변보다 높은 지대라 공해의 지붕을 볼 수 있지만, 아래의 사진에서는 신축된 학교 건물 이외 다른 부속 건물은 없었다. 이처럼 학교

부지로 전용되면서 옛 객사의 경내에 있던 많은 건물들이 훼손되었다.

그런데 북천동 229번지의 필지 전체가 교사 부지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동래읍성의 남문과 서문에서 뻗은 도로와의 점점에 위치한 옛 객사의 정문인 息波樓와 인접하는 남서쪽 부지에는 校長的 舍宅이 있었다. <Fig.7>은 1927년에 작성된

「東萊邑城內排水 Fig.7 Building Layout Plan, Area of 並道路整理計劃平 229 Bokcheon-dong in 1927

面圖」에 그려진 건물의 배치를 비교·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運動場」이라 표시된 부근에 보통학교의 신축 건물과 교사로 쓰이는 옛 객사의 정청이 위치했다. 그리고 아래로 부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선과 함께 「校長舍宅」표기와 건물 두 채가 확인된다. 『東萊府誌(1740)』에 의하면 객사 남쪽에는 鄉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교장사택의 일곽 경계가 향청 일곽의 경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21년 6월 교장사택이 229-1번지에서 별도의 229-3번지로 분리되었으므로 이러한 추정도 가능하겠다.

이처럼 동래공립보통학교 부지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으로 객사와 향청의 영역이 하나의 일곽처럼 합쳐져서 북천동 229번지의 단일 필지가 되었다. 그러나 단일 필지로 지속되진 못하고 1919년 개인 불하를 시작으로 필지 분할이 진행되었다.

3-3. 필지의 개인 불하

「토지대장」과 「지적원도」에 의하면 「북천동 229번지」 주소가 부여된 객사 일곽은 1912년 이후로 단일 필지를 형성했으나, 1919년 이래 총 8차례 필지 분할에 의해 1945년까지 12개 필지로 나뉘게 되었다. 필지 분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 拂下와 市區改正에 따른 도로의 개설이었으며, 특히 개인 불하의 혜택은 주로 일본인에게 주어졌다.

12) <朝鮮總督府令 第111號>, 1913년 12월 29일, 1914년 府制 실시로 옛 일본전관거류지 및 그 인근 지역은 부산부로, 옛 邑治가 있던 東萊面과 南面, 西面, 北面, 左耳面, 沙上面, 沙下面, 機張面, 日光面, 長安面, 鼎冠面, 鐵馬面은 동래군으로 편제되었다.

Fig.8 A Cadastral Map, 229-1 & 229-2 Bokcheon-dong

먼저 2947평에 달했던 북천동 229번지의 첫 필지 분할은 1919년 10월에 이루어졌고, 229-1번지(2881평) 및 229-2번지(63평)가 생성되었다. <Fig.8>은 「지적원도」에서 두 필지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229-1번지는 동래공립보통학교 부지였고 229-2번지는 동래읍성 서문과 남문에서 뻗은 도로와 접하는 대지였다. 1919년의 필지 분할은 옛 공해 영역 중 하나를 분리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는데, <Fig.9>처럼 「지적원도」와 사진자료를 비교해 보면 식파루와 인접했던 229-2번지는 팔작지붕 및 맞배지붕의 와가 몇 채가 63평 내에 조밀하게 배치되었던 대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Fig.9 A Cadastral Map(left) and Sikpa-ru(right), (right : Kim, Dong-Chul)

옛 공해가 남아있던 229-2번지를 책정 지가 평당 75.60원으로 불하받은 사람은 일본인 요시다 마사요시(吉田正吉)¹³⁾였다. 그는 1919년 12월에 소유권을 金在坤(鐵馬面 거주)에게 이전했다. 229-2번지의 소유권 이전은 빈번하였는데 1919년 10월 불하 이후 1923년 4월 金錫萬(福泉洞 198번지 거주)¹⁴⁾에게 이전될 때까지 소유자

13) 『총독부직원록』에 의하면 吉田正吉은 1910~20년까지 경상남도 東萊郵便所長(正8勳7)을 역임하였다.

14) 「토지대장」에는 김석만을 포함해 3대에 걸쳐 1960년대까지 229-2번지 소유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 5차례 바뀌었다.¹⁵⁾ 이는 229-2번지의 위치가 도로와 접해 있었고, 불하 토지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헐값에 매입하여 매매 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익성 부동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하의 특혜성은 229-6번지의 불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6년 11월에 229-6번지의 필지 분할 및 불하는 현안이었던 시구개정과 맞물려 동래면민들 사이에 상당한 저항을 초래하였고 신문기사에까지 거론되었다. 1925년 옛 동래읍성 내 도로 개설을 위한 豫定線이 확정되자 주변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혔다. 특히 동래면 유지들은 東萊耆英會館을 중심으로 面民有志大會를 개최하여 公論을 형성해 동래면 당국에 압력을 넣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前略)…既히 決定許可된 豫定線은 一般面民에게 利害關係가 만흔즉 絶對로 變更이 無케하기를 豫先警告하고 同時에 郡當局에 對하야 普通學校長舍宅址一部로 今後道路編入殘部를 市區改正上 毫分の 損失이 無한 日本人菓子商 秋良某에게 歇價로 暗裡에서 賣却하였다는 不合理無誠意한 措置를 質問하야 該賣約을 絶對破棄하고 公明正大한 處置를 要望하되…(後略)

동래면 유지들은 동래면 당국에 계획대로 도로를 신설해 줄 것과 일본인에 대한 개인 불하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226-6번지(116평)는 <Fig.10>처럼 229-3번지 일부가 도로로 분할·편입되고 남은 대지였다. 그런데 일본인 아키라 마사오미(秋良正臣)¹⁷⁾에게 헐값으로 불하된다고 하자 동래면 유지들은 유지대회를 통해 계약파기를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은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이해관계가 전무한 일본인이 도로 개설의 혜택을 입을 필지를 불하 받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되었다. 특히 재산상 불이익을 얻은 사례로 229-2번지의 소유자 김석만¹⁸⁾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63평의 대지 중 51평이 도로로 전환되어 국유지로 귀속되었다.¹⁹⁾ 그런 점에서 시

15) 229-2번지 소유권은 1919년 10월 吉田正吉이 불하받은 후 그해 12월 金在坤, 1921년 4월에 金喆壽(梁山 上北面 거주), 그해 11월에 朴英出(機張面 거주)에게 넘어갔다가 1923년 金錫萬(福泉洞 거주)에게 이전되었다.

16) 『동아일보』 1926년 10월 29일, 東萊面 有志大會 市區改正問題로

17) 『총독부직원록』에 의하면 秋良正臣은 1930~1934년까지 함경북도 청진우체국 會文郵便所長(10급)을 역임했다.

18) 『동래기영회 140년사』에서 金錫萬(1864년생)은 1916년 10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토지대장」을 통해 상속자로 확인되는 金奉相(1892년생)도 1951년 10월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개정과 관련하여 동래기영회관 중심으로 개최된 주민유지대회는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해관계가 연관된

Fig.10 A Cadastral Map, Area of 229-6 Bokcheon-dong

들이 의견과 주장이 반영되었다.

한편 <Fig.11>에서 볼 수 있듯이 229-6번지(116평)는 1933년 9월에 229-9번지(81평)가 분할·생성되면서 그 면적이 35평으로 축소되었는데, 문제가 된 불하 토지의 면적을 줄인 것이다.²⁰⁾ 1934년 1월에 秋良正臣은 1926년부터 불하 예정된 책정지가 평당 77.00圓의 229-6번지(35평)를 넘겨받았다. 그 후 229-6번지의 소유권은 1935년 6월 상속자였던 아키라 야스에(秋良泰衛, 咸北 鏡城郡 거주)를 거쳐 1939년 3월 宋榮善²¹⁾(北面 거주)에게 이전되었다.

Fig.11 A Cadastral Map, 229-6 & 229-12 Bokcheon-dong

소유자였다. 불하된 면적이 8평에 불과하므로 기존 소유의 필지와 합병할 목적으로 불하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필지의 소유권은 북천동 232번지와 함께 1943년에 韓新相(壽安洞 452번지 거주)에게 이전되었다.

이처럼 국유지였던 북천동 229번지의 개인 불하는 일본인에게 한정된 특혜였다. 비록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

19) 229-2번지(63평)은 1926년 11월 도로 개설을 위해 분할되었고, 생성된 229-4번지(51평)는 도로로 지목 전환되어 국유지가 되었다.

20) 229-9번지(81평)가 229-6번지에서 분할된 후에도 불하되지 않고 여전히 '國'으로 남았음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21) 『동래기영회 140년사』에서 宋榮善(1912년생)은 1971년 5월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 불하 과정에서 사유지화 된 필지는 적지만, 불하에 따른 필지 분할은 공간의 해체에 적지 않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20년대 시구개정과 관련되어 도로의 개설 혜택을 입었던 229-6번지의 불하 논란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동래면 유지들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비록 주민유지대회를 통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하는 강행되었지만, 시구개정에 의한 도로 개설이 북천동 229번지의 필지 분할의 주요 원인이 되기에는 충분했을 것이다.

3-4. 시구개정 사업과 도로 개설

1912년 日帝는 道 단위로 市區改正을 위한 계획 지침을 훈령으로 내렸다.²²⁾ 그리고 東萊郡의 시구개정은 1924년 7월에 착수되었다.²³⁾ 1920년대 식민통치하에서 이루어진 시가지 계획들 다수는 기존 읍성의 중심부를 도로의 개설로서 관통시켰다.

Fig.12 Dongrae-Eupseong Drainage and Road Readjustment Planning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 1927s, Busan Modern History Museum)

<Fig.12>는 1927년경 작성된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이며 1920년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927년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도로의 개설계획이 끝난 既成線과 1928년에 계획된 施工線을 구분해 평면도로 작성한 것이다.

이 도면에 의하면 1927년도까지 계획된 도로는 동래읍성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성

Fig.13 New Road Names of Planning

22) 『朝鮮總督府官報』 제56호, 1912년 10월 7일 조선총독부훈령 제9호, 시가지의 시구개정은 1912년 道長官의 제령에 따라 계획설명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는 훈령이 근거가 되었다.

23) 『毎日申報』 1924년 7월 7일, 東萊市區改正

24) 1926년 11월에 동래읍성의 서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성벽과 인접한 垵地들의 지목이 일제히 도로로 전환되었음이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Fig.14 Article of Road Construction (Dong-A ilbo, 1938.3.15)

객사 일곽 북쪽을 통과하는 福泉線, 낙민동에 서 동현 부지를 가로질러 북천선과 교차하는 樂民線 등이 있었다.²⁵⁾ 계획 선로 중에서 가장 먼저 공

사가 착수된 곳은 1938년 동래읍성의 남문 부근에서 東萊高等普通學校에 이르는 노선이었다.²⁶⁾

한편 1925년 이래 동래면²⁷⁾을 중심으로 시구개정에 따른 官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었고, 이는 여러 차례의 面民有志大會로 표출되었다. 대회의 주요 의제는 시

Fig.15 Comparison of road layout in Dongnae area (1927 and 2013 compared)

Fig.16 A Cadastral Map, the opening of the roads at Area of 229 Bokcheon-dong

설 촉구였다.²⁸⁾ 대회를 통해 결집력을 표출했던 동래면 유지들의 바람대로 시구개정은 원안대로 진행되었다.

25) <Fig.13>의 각 도로의 명칭은 『동아일보』 1930년 3월 14일자(壽安樂民兩線은 豫定대로 實施 決定 福泉線 만은 할 수 없다고) 기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6) 『동아일보』 1938년 3월 15일, 東萊邑多年懸案 市區改正着工, '...제一작으로 南門通回春堂에서 東萊高普로 가는 路線을 着手하리라고 한다'

27) 東萊面의 행정 위치는 1923년 一般面에서 指定面으로 격상되었고 1931년에 다시 邑으로 승격되었다.

28) 『동아일보』 1928년 10월 10일(市區變更反對 東萊市民大會), 1928년 10월 17일(市民大會開催 市區改正促成), 1928년 10월 25일(市區改正變更反對 東萊有志大會), 1928년 12월 28일(市區改正問題今後方針을 質問), 1929년 12월 11일(變更은 民意無視 豫定線을 實施), 1930년 3월 7일(東萊市區改正問題로 九日에 面民大會) 등의 기사 참조

1938년 3월부터 시구개정은 착공되어 동래읍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개설된 도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는 <Fig.15>에서 볼 수 있듯이 1927년에 제작된 「동래읍성내배수병도로정리계획평면도」의 예정선과 현존하는 도로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다.

1925~1938년의 시구개정 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계획되면서 북천동 229번지의 필지 분할은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Fig.16>은 지적도를 이용하여 도로의 개설과 필지들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보듯이 수안선과 북천선 주변으로 북천동 229번지의 세분화된 필지들이 집중되었다.

북천동 229번지를 관통하는 두 개의 도로 개설은 1926~1927년에 계획되었다. <Tab.1>은 1912년부터 1945년까지 북천동 229번지의 소유권 취득연월일을 정리한 것으로, 1926년 11월에 229-4 및 229-5번지가 수안선으로, 그리고 1927년 12월에 229-7번지가 북천선으로 수용되면서 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전환되었다. 특히 수안선 주변의 활발한 소유권 이전은 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Tab.1 The category of land and landowner, Area of 229 Bokcheon-dong

番地	地目	所有者 (所有權取得年月)						
229-1	垸	國 (1912)	東萊郡學校 (1921)					
229-2	垸	國 (1919.10)	吉田正吉 (1919.10)	金在坤 (1919.12)	金喆壽 (1921.4)	朴英出 (1921.11)	金錫萬 (1923.4)	金奉相 (1932.4)
229-3	垸	國 (1921.6)	東萊邑 (1936.8)					
229-4	道	金錫萬 (1926.11)	國 (1926.12)					
229-5	道	國 (1926.11)						
229-6	垸	國 (1926.11)	秋良正臣 (1934.1)	秋良泰衛 (1935.6)	宋榮善 (1939.3)			
229-7	道	東萊郡學校 (1927.12)	國 (1927.12)					
229-8	垸	東萊郡學校 (1927.12)	東萊邑 (1936.6)					
229-9	垸	國 (1933.9)						
229-10	垸	東萊郡學校 (1934.1)	國 (1934.9)	東萊邑 (1936.8)				
229-11	垸	東萊郡學校 (1934.1)	國 (1934.9)	東萊邑 (1936.8)				
229-12	垸	國 (1935.11)	中島久郷 (1935.11)	韓新相 (1943.3)				

* 주 : 229-4번지는 지목의 전환과 함께 229-2번지에서 분할되었음.

필지의 수가 늘어갈수록 면적은 세분화되었다. 사유지가 될 경우에는 더 축소되었으며 개인에게 불하된 필지들은 63평과 35평 그리고 8평이었다. <Fig.17>은 1912년부터 1945년까지 북천동 229번지의 필지 분할을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한 것이다. 1912년 2947평의 단일 필지가 1935년에 이르면 보통학교 부지였던 2111평을 제외하고는 121평~1평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분할되었다. 이처럼 1920년대 시구개정은 북천동 229번지의 공간 해체에서 전용, 불하와 더불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Fig.17 Flow chart of the Lots-Subdivision, Area of 229 Bokcheon-dong

3-5. 공설시장 개설

1926~1927년에 계획된 복천동 229번지 일곽의 수안선의 개설은 동래읍성의 서문 및 남문과 연결된 기존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東萊邑市場²⁹⁾에 영향을 주었다.

1924년부터 시장이전 문제가 거론되었으나³⁰⁾ 1925년부터는 도로 개설을 통하여³¹⁾ 그 해결책을 모색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1927

Fig.18 Dongnae-Eup(東萊邑) Market
(Source : Kim, Dong-Chul)

년 전후 시구개정에 따른 토지의 수용도여의치 않았던 것이³²⁾ 전용 공간의 마련이라는 대책을 내놓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시장 공간을 과거처럼 도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專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가 1930년대에 제기되었다. 1933년 소위 ‘東萊 一記者’가 작성했다는 기사에는 동래읍시장의 이전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을 보여준다.³³⁾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萊邑의 市場移轉問題는 現下의 가장急務라고 본다. 現在 東萊邑의 市場은 市街道路를 사용하는 原始形態 그대로 存續하고 있다. 邑營市場의 特殊한 施設은 커녕 專用地域도 하나 없어서 每市日이 되면 邑의 中央市街가 市場用地로 占領을 당케 되니 市街美觀은 且置하고 交通上不便이 莫大할 뿐더러 市街의 不潔로 市民保健上 또한 重大한 問題라고 아니할 수 없다. …(中略)…從來 東萊邑當局에서도 아마 市場經營의 必要를 感하는 모양이거나 오직 經費의 收支問題를 憂慮하여 지금까지 遷延하는 모양인데 此는 邑이란 地方公共團體의 責務를 沒却하고 다만 市場施設의 營利關係만 念頭에 둔 時代逆行의 錯覺의 所爲라고 아니할 수 없다. …(後略)

기사에서는 동래읍 당국이 시장경영을 전담하는 公設市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논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되어 1934년에 시장 예정지로 보통학교 부지가 거론되었다.³⁴⁾ 그러나 이는 東萊有志會를 통한 동

래면 유지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동래면 유지들은 회합을 통해 동래읍 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나름의 대안도 제시하였다.³⁵⁾

다년간 동래읍의 현안으로 내려오던 東萊邑市場 위치 문제로 지난 十日 오후 七시부터 동래읍 一誠館에서 지방유지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래읍시장은 동래읍에서 소화 十一년도 예산으로 전동래제—공보교부지를 매수하여 건설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제—공보교부지는 시장위치로 지형상 동래읍의 중앙고대를 점령케 되어 읍민위생상 또는 읍의 미관상 매우 부적당하다고…(中略)…시장위치를 동소로 결정하게 된 경위는 동래제—보교신축재원문제로 부득이 최근에 와서 동래 梵魚寺에서 동부지를 양수하여 유치원과 야학교를 시설할 의사를 보이게 되므로 이를 기회로 하여 다년간 문제이던 시장위치후보지를 토의코져 지방유지대회가 개최된 것이라 한다…당야 지방유지대회에서 장시간 토의한 결과 시장후보지로 제—로 舊東明學校敷地 제—로 「앞논들」 제—로 校洞近傍으로 정하고…(後略)

즉 높은 지대라는 부지의 지형적 특징을 반대 근거로 제시하였고, 학교 부지로 讓受하려는 梵魚寺의 의사를 기회로 대안을 제시하여 시장 위치를 변경하려 했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936년 4월 30일 복천동 229번지 일대는 동래읍이 직접 관할하는 公設市場 부지로 전용되었다.³⁶⁾ 그런데 당시 시장으로 부지 전용은 기존 교사 건물의 훼손을 전제로 했다.³⁷⁾ 그나마 잔존하던 옛 객사의 정청과 식과루도 이 무렵에 철거된 것이다.

시장 부지로 전용된 이후 필지 분할은 바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당시 시장의 관리는 <市場規則>에 따라 관청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³⁸⁾ 그러나 1960년대 소유권이 동래읍에서 사단법인 인증동래시장상인조합으로 넘어가면서³⁹⁾ 필지 분할은 다시 가속화되었다.

圓 豫算

35) 『동아일보』 1936.4.19, 東萊有志會合 市場問題討議

36) 1936년 4월 26일 동래군학교 부지가 폐지되고, 4월 30일 동래읍 시장 부지가 되어 11월 26일자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부지의 소유권도 국가에서 동래읍으로 이전되었다.

37) 『每日申報』 1936년 4월 15일, 東萊邑市場位置 懸案解決에 曙光, ‘…또한 동 위치는 읍의 중앙에 하야 읍의 ○○이며 古來客舍의 古○○소재지로 此를 毀撤하고 此에 ○○制의 常設市場을 設置한다면 읍 미관상에도 큰 好화를 잃게 된다하며…’

38) 『朝鮮總督府官報』 제635호, 1914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령 제136호, <市場規則>에 의하면 시장의 개설과 폐지는 道長官의 허가 사항이며 공공단체 및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관청의 통제는 필연적이었다.

39) 1969년 8월에 동래읍에서 사단법인 인증동래시장상인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토지대장」에서 확인된다.

29) 『慶尙道邑誌(1832)』, 東萊府場市 邑內場 每月二日七日開市

30) 『동아일보』 1924년 1월 29일, 東萊有志大會 市場移轉問題로

31) 『동아일보』 1925.8.30, 市場豫定線漏泄과 東萊面民奮起質問 및 1925년 9월 30일, 市場線은 比確定 追後發表한다고 東萊面市場線問題

32) 『동아일보』 1930년 12월 17일, 一個人가답에 市區工事中止 동래면시구개정공사에 面에선收用令適用

33) 『동아일보』 1933.2.1, 東萊時話, 市場移轉問題

34) 『동아일보』 1934.7.10, 東萊邑市場 移轉施設計劃, 工費二萬七千

Fig.19 A Cadastral Map in 1971

Fig.20 A Comparison with Two Cadastral Maps(1912 and 1971), Dongnae Market Block

이후 시장상인조합을 중심으로 시장이 운영되면서 나타난 필지 변화의 또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래시장으로 부지 전용은 오늘날 그 자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옛 객사 일곽의 공간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4.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동래부 객사 공간의 해체 과정을 필지 분할이라는 관점으로 시가지 조성계획부터 필지 분할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소유권의 변화 측면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래부 객사 일곽은 1907년 통감부에 의해 공립 소학교 부지로 전용되었다. 日帝는 <奏本第二百十六號 前東萊郡內客舍東側空垞及別砲廳工房廳大同所收用新築 公立小學校>를 통해 의도적으로 객사 일곽을 학교 부지로 전용시켰다. 일제의 이러한 행위는 동래부 객사를 시발점으로 성역의 파괴 및 전용의 사례를 만듭으로써, 조선왕조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지방 邑治의 중심부를 해체시키는 발판으로 삼아 식민지화를 촉진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1920년대 시구개정에 의한 시가지 계획으로 객사 일곽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필지 분할이 촉진

<Fig.19>는 1971년의 「폐쇄지적도」로 시장 주변 필지들의 세분화를 보여준다. 특히 시장 내외의 도로 주변으로 필지들의 세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도로를 점거했던 亂塵들이 관청의 통제를 벗어난 이후, 합법적인 필지 생성을 통해 새로운 지면을 생성시켰음을 <Fig.20>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시장상인조합을 중

심으로 시장이 운영되면서 나타난 필지 변화

의 또 다른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래시장으로 부지 전용은 오늘날 그 자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옛 객사 일곽의 공간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되었다. 1912년 단일 필지였던 동래부 객사 일곽에 동래읍성을 관통하는 두 개의 도로가 1926년 개설 예정됨에 따라 필지 분할이 이루어졌다. 이는 1927년 작성된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를 통해서 확인된다. 도로의 개설로 주변 필지들의 세분화가 촉진되었다.

셋째, 1912년 이래 국유지였던 객사 일곽은 1919년 이래 세 번에 걸친 개인 불하로 필지 분할되어서 사유지화되었다. 국유지의 불하는 일본인에게 한정된 특혜였으며, 필지의 사유지화는 개인 간의 소유권 이전행위로 인해 추후의 필지 분할을 야기하였다.

넷째, 1936년 공설시장으로 부지 전용은 학교 이전 및 시장 운영과 관련된 비용 마련을 위해 동래읍 당국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러한 부지 전용은 잔존했던 옛 동래부 객사 건물들의 훼손 계기가 되었고, 해방 후 시장 주변 필지들의 사유화 및 세분화를 가속시켰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 자취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객사 일곽의 공간을 완전히 해체시켰다.

본 연구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객사 공간의 해체 과정을 사례 연구로서 밝히고자 하였다. 제한된 자료를 통한 규명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오늘날 확인되는 자료는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향후 이어질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地籍原圖」, National Archives of Korea
2. 「土地臺帳」, 「地籍圖」, Dongnae-gu Office
3. 『東萊府誌』(1740), 『東萊府邑誌』(1899)
4. 『奏本』, 議政府 編, 奎17703
5. 『Dong-A Ilbo(東亞日報)』, 『Maeil-Sinbo(毎日申報)』
6. Professor Kim, Dong-Chul (Pusan National University), Private holdings photo
7. Dongnae-gu Office, Provide material photo
8. Busan Metropolitan City, 『Old Map of Busan(釜山古地圖)』,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8
9. 「東萊府使接倭使圖」, National Museum of Korea
10. 「東萊邑城內排水並道路整理計劃平面圖」, Busan Modern History Museum
11. Dongnae-gu Office ·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PNU, 『東萊府東軒 一廓 整備綜合計劃』, 2012

접수(2013. 4. 15)

수정(1차: 2013. 6. 10)

게재확정(2013. 6. 25)